

예술인-기업·기관의 창작 콜라보 눈길 스트링 듀오 빈·예락 초청 '공연 나눔'

광주문화재단 '광주예술로' 예술인 55명·기업·기관 11곳 도시재생센터·청년유니온 참여 5월 역사 품은 예술키트 등 제작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함께하는 '광주예술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광주청년유니온.

대인동 오래된 상권을 예술과 접목해 추억 살리기, 미래세대와 공감하는 5월 아트 상품 제작, 국가 폭력 현장을 배경으로 협업 창작...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함께 하는 '광주예술로' 프로젝트는 이색적인 콜라보 작업이다.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확산은 물론 다양한 예술 영역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기업과 기관은 공익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2년째 진행중인 광주예술로가 올하는 예술인 55명과 기업·기관 11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예술인 55명에는 리더 예술인 11명과 참여예술인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르 또한 미술, 문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창의적인 시도가 펼쳐진다.

선정된 기업은 도시·청년·문화·역사·교통·의료 등 11곳이다. 구체적으로 (사)광주교통문화연구소, (사)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청년유니온, 김빛과,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유)선에 이치출딩스, ㈜아트주, ㈜와사바아, (재)5·18기념재단, ㈜티디엘,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이 참여한다.

먼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일산·전남방직

여공, 양산시장 골목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시와 영상 기록 등을 준비하고 있다. 리더예술인은 김옥진(미술)이며 '터무니의 기록-그 안의 삶을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누군가의 꿈이 담긴 공간으로서의 기억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뒀다.

5·18기념재단은 '오월의 기억을 데려가세요'를 주제로 미래세대와 공감하는 5월 관련 아트 상품 제작과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 리더 예술인은 김선영(미술)이다.

예술인 권리보장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리더예술인 장도국(연극)과 함께 'ARIST over the ART'를 주제로 예술 너머의 예술가를 조명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노동 창작 환경, 예술활동 과정을 인터뷰하고 이를 권리보장 조례를 위한 마중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가폭력과 예술'에 방점을 두고 5·18, 6·25, 일제 강점기 등 국가폭력이 발생한 현장을 배경으로 공연과 미술 등 협업을 진행한다. 리더 예술인은 주홍(미술)이며 장소 특색형 협업을 추진한다.

예술인의 창의성을 기업 이미지 개선과 연계한 프로젝트도 있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예술인이 한 방 병원으로 간 까닭은?'을 주제로 오래된 병원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리더 예술인 조광식(영화)과 다양한 분야 작가들이 병원 홍보물, 버스 등을 디자인한다.

이외에 광주교통문화연구소의 '교통문화, 예술로 꽃피다!'(리더 예술인 오성환·연극), 김빛과의 '대인동사라기 프로젝트'(리더 예술인 나리·음악) 등도 펼쳐진다. 문의 062-670-57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9·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이 지역 청년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창작,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빛고을시민문화관 함께하는 공연나눔'. 오는 9일과 10일은 청년예술 단체 스트링 듀오 빈(WIEN)과 예락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9일(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은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 씨와 첼리스트 오지희 씨로 구성된 스트링 듀오 빈의 제1회 정기연주회 무대로 꾸며진다. '바흐의 인벤션', '프랑스 모음곡'을 연주하고 호프마이스터·베토벤·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엣', 바르톡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헝가리 민속 멜로디'를 연주할 계획이다.

청년예술인 박승원·오지희 씨는 광주에서 초등 생시절부터 만나 십대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났다. 2015년 스트링 듀오 빈을 창단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0일(오후 7시) 예락의 '예락과 함께하는 모던한 우리음악'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우천 시 5층 소공연장에서 진행. 신민요 '노들강변', 국악가요 '벌어져간다', 판소리 심청가 눈대목 '추월만정_남에게 보내는 편지' 등 민요



스트링 듀오 빈

를 편곡해 선보인다.

예술이 숨 쉬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예락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다. 이날은 음악감독 김보람, 노래 박은비, 드럼 신보영, 플룻 박지수, 건반 황진수 씨가 출연한다. 공연장 260명 제한, 전화예약. 문의 062-670-79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수필문학회 '광주수필' 발간

광주수필문학회가 발간하는 2021 상반기 '광주수필' (통권 73호)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초대수필 코너로 김소은 수필가(1907~1981) '가난한 날의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신조' 등을 저술한 시인이자 수필가로 활동한 고인은 수필집 '마이동풍', '목근통신', '삼오당집필' 등 8권을 펴냈다. 그의 작품 '가난한 날의 행복'은 언제 읽어도 잔잔한 감동을 준다.

"지난날의 가난을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진부한 일편의 경우만은 아니다."

또 다른 초대수필에서는 국제PEN한국본부 명예 이사장인 손해일 수필가의 '스프링고우트와 황제행권'을 만난다. 작가는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우기가 시작되면 광란의 질주 끝에 집단 자살하는

이들과 남극의 겨울 흑연에 번식하는 황제행권을 비교하며 생존의 지혜와 인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밖에 장정식, 오덕렬, 이춘배, 김영관 수필가의 작품과 신입 회원 김홍식의 수필도 수록돼 있으며 배대균 수필가가 번역한 수잔나 스로브스토프의 '두 사별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한편 김영관 광주수필문학회 회장은 '긴 터널을 지나며'라는 권두에세이에서 "지나고 나면 한 달이고 일년"이라며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 한편이라도 더 좋은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 10일 '강유가람 단편선'



강유가람 감독의 '시국 페미'

여성의 삶과 역사에 주목해 온 강유가람 감독의 '우리는 매일매일' 개봉을 기념해 그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극장은 '강유가람 단편선'을 오는 10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이날 극장에서는 그의 데뷔작인 단편 다큐멘터리 '모래' (2011)와 단편 극영화 '진주머리방' (2015), 장편 다큐멘터리 '시국페미'를 무료로 상영한다. '모래'는 강남 은마아파트에 얼

린 개인의 가족사를 통해 한국사회 가족주의 담론까지 확장시킨 작품으로 제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6시 '우리는 매일매일' 상영 후에는 이세진 프로그래머의 진행으로 강유가람 감독, 배우 허은주(가나)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 확진자 프로그램 참여 ACC 어린이문화원 임시 휴관

아시아문화전당 5개월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문화원에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감에 따라 7일부터 어린이 문화원이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문화전당은 지난 4일 어린이문화원 창작실현실에서 진행되는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 가운데 1명이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오전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려졌다. 문화전당은 지난 4일 프로그램 참여 수강생, 교육 담당 강사, 진행자 등을 비롯해 어린이문화원 근무 인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이르면 8일 중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아울러 4일 당일 어린이문화원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했다.

현재 어린이문화원 외 나머지 4개원은 휴관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행히 지난 5일 월요일은 문화전당 관람이 휴원인 관계로 관람객은 없었다고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인권교육 강좌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지역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정리수납, 인권교육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이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오는 14일과 16일 오후 2시 모모포포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힐링과 취미가 되는 정리수납' 강좌는 청소 및 정리 습관을 길러 보다 쾌적하고 청결

한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시간이다.

21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권교육'은 이주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준다.

본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14일까지 홈페이지와 전화(061-282-1562)로 접수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
| 해미패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계량한복·무대의상·작품한복전문 ☎ 062)224-5958, 010-6777-5958 | (주)K&J컴퍼니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255, 3층 미래를 생각하는 테크, 신재생에너지 테크 원금보장, 안정된 높은 수익 ☎ 1899-1972 | 작곡가기법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터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율켄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 한국기원 광주 북구 운암동 450-17 (운암시장 앞 한국회관 3층) 바둑 원장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넓고 깨끗한 환경 ☎ 010-8610-8373 | 힐스팀힐링센터점질방 광주 북구 동림동 33, 핸드폰기계 2층 만성통증, 요통, 오십견, 수족냉증, 수술후유증, 관절염 각종염, 산후통, 손발저림, 산후조리, 다이어트 피부미용, 아토피, 비염, 불면증, 피로회복, 생리통 ☎ 062)413-3507, 010-4630-3507 |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0 (두암동 946-7) ☎ 062)263-2223, 010-3819-6595 | 씨니헤어샵가발 나주시 성북동 4거리 삼성디지털프라자 옆 최신식 두피 케어 전문 컷트, 파마, 염색, 탈모관리, 히피펌 전문 전화예약 ☎ 010-3996-0489 | 동태랑대구랑전문점 나주시 남내1길 4-1 각종 모임 환영 ☎ 010-2127-0888 |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
|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 새희망 직업소개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남·여 인력 한시모집 ☎ 062)531-5511, 010-6522-1524 | 대신청소전문기업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54, 2층 학교청소, 공장청소, 업소청소, 외벽청소 현장청소, 준공청소, 입주청소, 거주청소 이사청소, 해충방제 ☎ 062)526-1133, 010-6522-1524 | 첨단돌솥감자탕산포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6 ☎ 061)332-6108 |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법민맥 행정법률사무소 북구 유동 41-6번지 행정사 김유승 ☎ 062)523-5885, 010-5665-0150 |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 | | |